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2022년 8월 14일



복음 나누기

연중 제 20주일 (8월 14일)
불을 지르러 왔다.
(루카 12,49-53)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51번 "주여 임하소서"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루카 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49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50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51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52 이제부터는 한 집안의 다섯 식구가 서로 갈라져, 세 사람이 두 사람에게 맞서고 두 사람이 세 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53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루카 12,49)

나는 불을 지를 만큼 열렬한 삶을 살았던 적이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루카 12,51)

지금 우리는 너무나 안락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복음 나누기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극한직업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금을 가공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금을 용기에 넣고 불로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가열을 한다. 카메라로 그 장면을 찍는 사람이 금 가공 장인에게 "지금도 충분히 금이 녹은 것 같은데, 왜 불을 계속 가하냐" 라고 물어봤다. 그 말에 장인은 "금에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빛을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불을 가하면 가할수록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불순물이 타버리죠. 그래서 더 뜨겁게 불을 가하는 겁니다." 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누구나 질곡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불을 지르시려는 이유는 우리 마음에 불순물들 주님을 의심하는 마음, 주님을 미워하는 마음, 주님을 저주하는 마음을 다 태워버리시고, 주님으로 온전히 빛을 내는 자녀들로 만들어 주고 싶으신 주님만의 비법인 것 같습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진행자] 지난 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51번 "주여 임하소서"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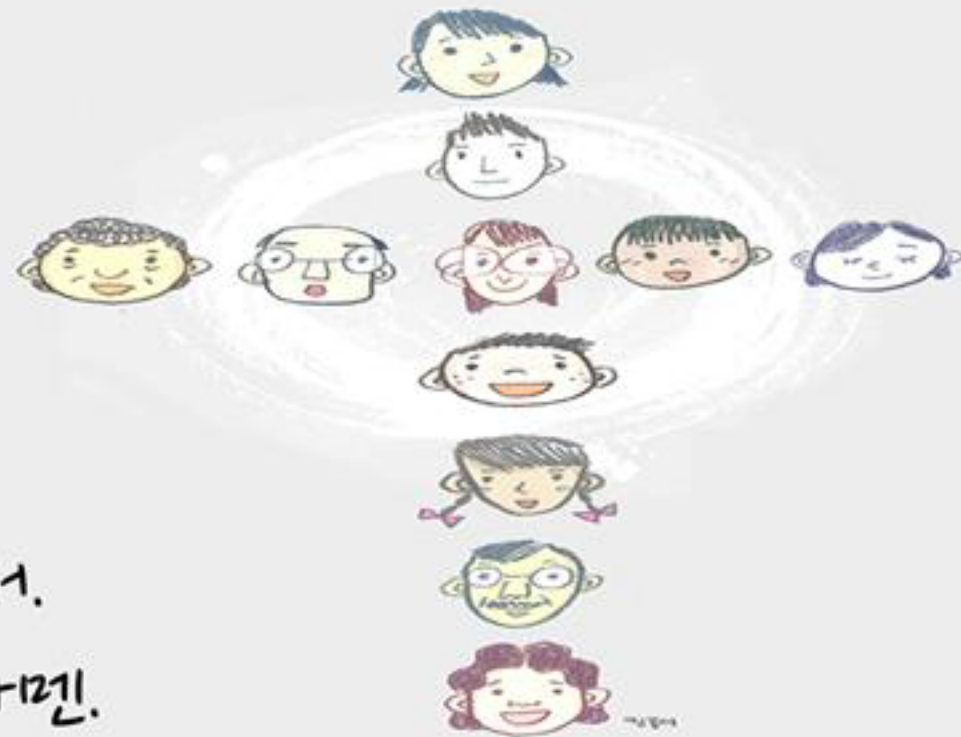


소공동교회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시길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리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교회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서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 소공동체의 네 가지 요소 -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실현

소공동체는 그 자체로 교회이며 지역 사회 안에서 보편 교회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따라서 소공동체가 교회일 수 있는 것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교회의 이상으로서 규정한 네 개의 현장에서 강조하는 요소들을 얼마나 충실하게 현실 안에서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곧 전례의 중요성과 전례를 통한 교회의 일치성을 강조한 '전례 현장', 하느님 백성의 친교로서 공동체성을 강조한 '교회 현장', 살아 있는 하느님의 말씀을 강조한 '계시 현장', 그리고 세상 속의 교회로서 인간 구원을 위한 사회 속의 교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사목 현장'입니다. 따라서 공의회 문헌의 네 개의 현장이 강조하는 이러한 전망은 우리 사목 현장에서 구체적이며 실천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소공동체에는 교회성을 드러내 주는 고유한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특별히 한국 교회는 소공동체가 도입되던 초기부터 롬코 연구소에서 제안했던 소공동체의 네 가지 요소로 교회의 여러 다른 단체 또는 일반 공동체들과 구분하고 있습니다. 곧 소공동체로 규정하는 네가지 요소는 첫째 이웃을 기반으로 삶의 자리(가정)에서 모이는 공동체이고, 둘째 공동체 구성원들은 말씀(부활한 주님)과 함께 나눔을 하며, 셋째 교회 공동체 또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실천하며, 넷째 교도권의 가르침과 전례를 통하여 보편 교회와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갖는 강조점들을 통하여 어떻게 소공동체가 공의회의 전망을 실현해야 하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 발행한 「한국 천주교회 소공동체-원리와 방향, 운영과 실천-」에서 발췌하였습니다.